



1월 29일 2002년도 제1차 이사회가 열렸다.

본회, 2002년도 1차 이사회 열어

본회는 1월 29일 호텔롯데에서 2002년도 제 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정광보 회장과 김모임, 김대규, 김준명, 고명은 이사를 비롯하여 총 10명의 이사가 참석한 이 회의는 2001년 주요 사업실적 보고, 2001 회계연도 감사보고와 2001회계년도 결산승인,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성관계정안 상정, 승인 등으로 진행되었다.

국내서 에이즈백신 세계 첫 생산

세계 첫 에이즈(AIDS) 백신 생산기업이 한·미 합작으로 인천에 들어선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적인 에이즈 백신 개발회사인 미국의 맥스젠은 국내 바이오벤처기업인 넥솔바이오텍 및 한국당배인삼공사 등과 오는 3월초 인천 송도백리에 백신을 생산하는 합작회사 "셀트리온"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맥스젠은 이미 지난해 인천시와 합작공장 부지 구입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25일 국내 합작사들과 정식 계약을 맺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맥스젠은 미국 생명공학 기업인 제넨텍이 에이즈 백신 개발을 위해 지난 95년 설립한 자회사로 특히 농물세포 배양기술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한국경제 2월 21일)

자랑스런 연세인상 수상

본회 심치선 이사가 2002년 1월 12일 힐튼호텔에서 '자랑스런 연세인상'을 수상했다.

국산 AIDS백신 임상시험

국내에서 개발된 에이즈 치료 백신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임상시험에 들어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심영철 교수가 개발한 에이즈 백신 'GX-12'에 대해 국내 임상시험 시행 여부를 협의 중"이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 에이즈 백신을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허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6-7월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단계의 에이즈 치료백신이 환자에게 투여될 예정이다. 심 교수가 개발한 'GX-12'는 에이즈 바이러스를 인식할 수 있는 유전자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 생성을 촉진하는 물질 '인터루킨-12 변형체'를 결합시킨 백신으로, 에이즈 치료와 예방 효과를 낸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전염병 연구소에서 에이즈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2월 5일)

최초 에이즈 치료제 개발한 美 배리박사 사망

최초의 에이즈 치료제 개발에 참여한 미국 의학자 데이비드 W 배리 박사가 지난 28일 입부어행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향년 58세. 배리 박사는 에이즈 치료제 AZT의 공동 개발자로 에이즈 치료를 위해 한가지 이상의 약을 투여하는 이른바 '콕테일' 요법을 주창하기도 했다.

특히 산모로부터 에이즈가 아기에게 전염될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밝혀져 이러한 전염 방식이 앞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베리 박사는 바이러스성 질환 치료제 전문인 더림의 트라이앵글 제약회사를 세웠다. (AP 연합뉴스 2월1일)

‘환자들이 주사기로 길가는 사람 찔러’

텐진 ‘에이즈테러 공포’

19일 오후 찾은 중국 동부항구도시 텐진시는 ‘에이즈 테러’ 공포에 떨고 있었다. 한국 교민들도 2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텐진에는 최근 “에이즈 환자가 자신의 피를 주사기에 뽑아 길가는 사람을 바구 찌르고 다닌다”는 소문이 난무했다.

특히 지난해 불법매혈로 집단적으로 에이즈가 발생한 허난성에서 환자들이 대량으로 탈출해 잠입했다는 소문까지 퍼들면서 도시를 공포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었다.

‘에이즈 공포’로 당장 시민들의 경제활동이 타격을 받았다. 유명한류상가인 제일우의상점 2층매장의 한 가게 주인은 “지난주말 가게 일곱 곳의 하루 매출액이 2천위안(약 32만원)에 불과했다”고 울상을 지었다.

‘에이즈 테러범’이 처음 출현했다는 최대 변화가인 빈장다오에는 두터운 검정색 외투를 걸친 공안들이 비상경계에 들어가 곳곳에서 삼엄한 경비를 펴고 있었다. 한국 국제학교 등 시내 학교들에도 “학생들에게 주의시키라”는 긴급통지문이 일제히 내려온 상태다.

텐진 한국인회 관계자는 “아직 한국인들의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겨레 1월 21일)

‘에이즈 오진 18억원 배상’

에이즈로 잘못 판정 받은 뒤 무분별한 성생활을 하다 진짜로 에이즈에 걸린 미국의 40대 남성이 1백40만 달러(약 18억2천만 원)를 배상 받게 됐다.

미 오클라호마시티 배심원은 17일 시 보건국이 앤서니 노스컷(40)이라는 남성에게 에이즈 검사결과를 잘못 통보해 실제로 감염에 이르게 했다는 잘못을 인정해 아같이 평결했다. 노스컷은 1993년 오클라호마시티 보건국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에이즈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 통보를 받아 두차례나 자살을 기도하는 등 실의에 빠졌으나 97년 우연히 자신의 걸진 기록철을 살펴보다 음성이었음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조폭 무기수 출소노려 일부러 에이즈 감염

살인교사 40대, 감염 수감자 혈액등 투입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수감된 조직폭력배가 교도소에서 나오기 위해 에이즈 환자인 다른 수감자의 피 등을 자신의 몸에 투입해 에이즈에 감염됐다.

부산지검 강력부(부장 김병선)는 29일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폭력조직 유태파 부두목 김아무개(40)씨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기 위해 교도소에서 고의로 에이즈에 걸린 사실이 드러나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1월 초 부산교도소 연탄창고에서 에이즈 환자인 다른 수감자 김아무개(31)씨의 피를 주사기로 뽑아 자신의 팔에 투입하는 등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세 차례에 걸쳐 김씨의 피를 자신의 몸에 넣거나

정액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대법원에서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부산교도소 일반 사동에서 복역중이었으며, 또다른 김씨는 폭력 혐의로 2000년 12월 부산교도소에 수감됐으나 에이즈에 걸린 상태여서 병사동에 격리수용돼 있었다.

검찰은 폭력배 김씨에게 피와 정액을 제공해 에이즈에 걸리게 한 혐의로 또다른 김씨를 구속하는 한편, 폭력배 김씨와 부산교도소 관계자, 감염 과정에 관여한 황아무개씨 등 수감자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겨레 1월 30일)

그는 에이즈 감염을 비판하면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무절제한 성생활을 한 탓에 오진임을 발견한 지 두달 뒤 에이즈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AP연합 1월19일)

중국 마을, 주민 80% 에이즈 감염

중국 허난(河南)성의 한 마을 주민 80%가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됐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허난성 보건당국의 최근 검사 결과 허난성 전체 인구 9천2백만명 중 37만명이 양성반응을 보인 가운데 후양촌은 인구의 80%인 3천2백여명이 양성반응을 나타냈다.

이 마을에서만 지난 한 해 동안 1백50명이 에이즈로 사망했으며 주민 대부분이 불법적인 매혈(賣血)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 1월 7일)

베트남, 값싼 에이즈치료제 대량생산계획

베트남정부는 급속히 늘어나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인 HIV 보균자들을 위해 국내에서 값싼 치료제를 대량생산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보건부와 국가HIV대책위원회는 최근 하노이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외국에서 통용되는 에이즈치료제를 국내에서 대량복제해 환자들에게 싸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또 국제적으로 공인된 에이즈치료제를 복제함과 동시에 베트남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개발한 한약처방을 환자들에게 제공해 환자들의 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방침은 그러나 약을 개발한 외국제약회사들로부터 복제권을 얻는 절차가 남아있다.

국제적으로 아주 싸게 팔리고있는 치료제를 특정국이 싸게 복제해 파는 것은제약회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베트남이 제약회사들과의 접촉도. 하기전에 이처럼 싸 치료제의 공급을계획하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총회에서 '후진국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대량의 인명을 구하기 위해 특정 약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브라질과 남아공은 이 문제를 제기해 승소판정을 받았다. 베트남도 이 판정을 근거로 에이즈 치료제의 대량 복제를 계획하고있다.

베트남은 지난해말 현재 공식적으로 4만2천365명의 HIV양성반응자가 신고됐고이들 중 6천343명은 현재 병을 앓고 있으며 3천474명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에이즈 보균자는 이보다 몇배 많은 13만명에서 13만5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트남은 해마다 에이즈대책비로 330만달러를 쓰고있으나 대부분이 교육홍보와테스트장비구입, 혈액안전운반 등에 쓰여지고있다.

따라서 실제로 치료제의 구입비로 사용되는 비용은 연간 1만달러 내외에 그치고있고 개인당 사용가능액도 연간 200-400달러에 머물고있어 사실상 치료를 하지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연합뉴스 2월 2일)

두번째 우주관광객, 우주에서 HIV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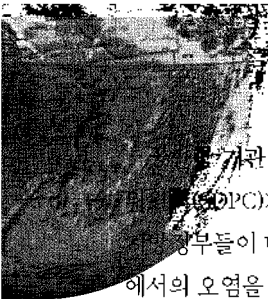
세계에서 두번째 우주관광객이 될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인터넷 재벌 마크 시틀워스(28)는 우주여행 도중 남아공의 최대 현안중 하나인 에이즈를 퇴치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2천만달러의 거액을 내고 오는 4월 러시아 우주선에 승선, 우주여행을 하는 시틀워스는 이날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우주 궤도에서 에이즈바이러스(HIV)와 면역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단백질결정체 실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주공간에 사상 처음으로 줄기세포를 가져가 줄기세포의 성장을 연구하고,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대학에서 위촉받은 스포츠과학분야 심장 및 생리학 실험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월 4일)

중국, 에이즈 억제 위한 혈액은행 확충에 2억7천만 달러 투입

중국은 에이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혈액은행 신설 및 확충에 총 22억5천만위안(2억7천만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관영 언론이 31일 보도했다.



환경기관지 인민일보는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계획위원회(NDCPC)가 이 가운데 12억5천만위안을 제공하고 정부들이 나머지 10억위안을 투입해 혈액 공급 단계에서의 오염을 막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HIV/에이즈 감염자를 2만8133건으로 공식 집계하고 있지만 의료 관계자들은 실제 감염자가 6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로이터 2002년 1월 31일)

남아공, 복제 AIDS약품 사용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는 에이즈 치료제 보급을 늘리기 위해 치료제의 특허권을 무시하고 브라질에서 값싼 복제약품을 수입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남아공의 전체 인구 10명 가운데 한명이 에이즈 환자이지만 정품 치료제의 값이 너무 비싸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품 값의 20분의 1 수준인 복제 약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에이즈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는 전세계 제약회사들은 약품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YTN 1월 30일)

세계에이즈퇴치기금 활동 개시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해 20억달러의 기금을 운용하는 세계에이즈퇴치기금이 29일 가동에 들어갔다.

세계에이즈퇴치기금은 이란 체내바에서 이사회를 열

고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해당국가들로부터 기금지원 요청을 접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기금지원을 바라는 국가는 오는 3월 말까지 구체적인 보건계획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4월부터 본격 검토작업에 착수한다. 폴 에흐머르 세계에이즈퇴치기금 사무국장은 기금이 활동에 들어갔다면서 모든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6월부터 기금을 나눠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에이즈퇴치기금은 지금까지 비국과 영국 등 기부국들로부터 19억달러를 내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며 이중 7억달러를 올해 안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연합뉴스 1월 30일)

파월 "콘돔 때문에" ... 젊은이들에 사용권장 발언 비난 빚발 곤욕

"에이즈에 걸리지 않으려면 성관계 때 콘돔을 사용하라." 자유분방한 젊은이들을 향해 던진 콜린 파월 미국 부장관의 충고 한마디가 의외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15일 외신들이 보도했다.

파월 국무장관은 14일 방영된 음악채널(MTV)의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 "콘돔 사용을 금지하는 천주교의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방청객 다니엘라 산토리(19·여)의 질문에 "콘돔은 에이즈를 예방하는 수단"이라며 "성을 즐기는 젊은이들은 사용하기를 권한다"고 답변했다.

그의 발언이 보수적인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에이즈 예방정책과 배치되고 젊은이들의 성관계를 부추긴 것으로 해석되면서 '분별없고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에이즈 예방법으로 콘돔 권유보다는 절끈 '금욕과 절제'를 내세웠고, 예방교육 등을 위해 올 회계연도에만도 120억달러를 책정해 놓고 있다.

(동아일보 2월 17일)

여러분의 후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3~4월)

강연철 10,000	손인숙 10,000	이준해 100,000
권순주 10,000	신문환 10,000	이혜숙 10,000
권혜연 10,000	양윤식 20,000	전경숙 20,000
김매자 10,000	엄정순 10,000	차영자 20,000
김의석 10,000	유금숙 20,000	최강원 50,000
김의석 50,000	윤성현 5,000	최재규 10,000
김준명 200,000	이영 100,000	최정인 100,000
민영훈 50,000	이석배 20,000	함유식 10,000
박광서 300,000	이승기 20,000	
서동희 20,000	이응훈 30,000	